

전통발효산업 순창사업소 개소

토지보상·단지개발 착수 계획·단지조성 가속도 붙을 전망

순창군의 장류산업의 대변혁을 가져 올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이 LH 순창사업소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 속도를 내게 됐다. 순창군과 LH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0일 오는 2021년까지 고추장마을 인근 13만㎡을 산업과 관광이 융복합된 단지로 개발하는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지구조성 LH 순창사업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지난 8월 순창군과 LH 전북지역본부가 토지보상 및 단지 개발 등을 위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LH는 순창사업소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지보상 및 단지개발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단지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사업소 개소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 12월 토지 보상을 착수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조성공사에 착공해

2019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순창군은 2021년까지 발효테라피센터, 세계발효마을농장, 100세 다년생식물원, K-Dressing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또 사조그룹은 120억원을 투자해 기업연수원, 발효슬로시티파크(펜션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소설치가 전통 장류산업이 순창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발돋움 하는데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위한 LH 순창사업소 개소식에는 황순주 군수와 서기식 LH 전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사업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황순주는 "과거 50년이 산업에 기반한 순창의 성장시대였다면, 앞으로 50년은 산업과 관광, 전통과 첨단, 그리고

농촌과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며 "그 시작을 이 3개의 순창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명감을 느끼며 앞으로 LH와 협력하여 세계적 성공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식 본부장도 "순창 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써 큰 의미를 갖고 있어 앞으로 순창의 특화산업인 전통식품을 생산, 소비,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경제형 전통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국토부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농식품부 등과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로 12월경 최종 지구조성에 대한 고시가 이뤄질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 강천산 붉은 단풍 '유혹'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역 상권 활기 찾아

순창 강천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전국에서 순창을 찾는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 군은 지난 주말과 휴일 이를 동안 순창 강천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7만 3천여명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에 평일에도 평균 민병 정도가 붉은 단풍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강천산을 찾고 있어 당분간 강천산 단풍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측은 이번주까지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고 올해 단풍기가 다소 늦어 다음주까지도 붉은 단풍 비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강천산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역 상권도 활기를 찾고 있다. 특히 주말이면 관내 식당가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여 자리 잡기가 힘들 정도라는 후문이다. 이처럼 강천산 단풍이 인기를 끄는 예기단풍이 유독 붉은 빛을 띠어 산전체가 붉은 단풍으로 물드는 장관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특히 병풍폭포에서 구장군 폭포까지 이어지는 2.5km 구간에는 예기단풍이 병풍을 치듯 늘어선 단풍 절경에서는 붉은 용단 터널을 걷는 느낌을 들게 하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군은 순창에서 전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최대한 편안한 강천산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 말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 주말과 휴일에는 근무 직원을 늘리고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번주까지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다음주에도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국에서 단풍을 감상하기 위해 강천을 찾는 관광객이 몰리다 보니 교통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찍 나들이에 나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관광발전 위한 원탁회의

시민과 행정, 시민과 시민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세 번째 원탁회의가 12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원탁회의의 주제는 '시민이 바라는 남원시 관광발전에 대한 이야기'이다. 품격 높은 관광남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남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원탁회의에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 했다. 이환주 시장은 "원탁회의의 진행자들의 간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공통분모를 찾아 가는 것이 행정과 시민간의 소통이라 생각한다."라며 "다수의 말 없는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원탁회의 의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남원시청 시민소통실(063-620-6802)로 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전기차 충전 무상설치 선착순 모집

18일까지... 관내 아파트·공동주택에 금전적 부담없이 입주 주민 편의시설 운영

남원시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 관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무상설치를 오는 1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주차 공간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전기차 구매가 쉽지 않은 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적절한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무상으로 지원한

다. 공동주택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부지 제공 이외의 금전적인 부담은 전혀 없이 충전시설을 확보해 입주 주민의 편의시설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간 충전 인프라 설치 합의 ▲충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설치 부지 제공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 배정 등의 설치조건이 필요하다. 충전기 설치 시 공동주택 변압기 용량 부족 등 기술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재건축 대상아파트는 충전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충전시설 설치 설비 및 운영관리를 무상으로 지원한

리해 별도의 요금이 충전기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18일까지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전 신사업기획단 ☎061-345-39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점차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무상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이 한전을 통해 추진되는 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일본 치즈명장 초청 교육

제조기술·관리요령 등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소장 이상천)는 유가공 산업 발전과 치즈 고품질화를 위해 일본 치즈명장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일본 훗카이도 삼우농장(三友農場) 대표 미토모 유미코(三友由美子), 미토모 모리유키(三友盛行) 명장의 치즈제조 기술, 품질관리요령, 일본 낙농 정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RIS)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임실치즈&식품연구소에서 관내 낙농 및 유가공 관련 종사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미토모 유미코(三友由美子) 명장은 국제대회 대상수상(프랑스치즈부문)을 비롯해 20여 년간 쌓은 치즈제조 노하우를 가져 제조 및 유행이론, 자

연치즈의 제조 실습 교육을 맡았다. 미토모 모리유키(三友盛行) 명장은 도료 및 훗카이도 대학에서 목장 경영 강의의 하는 낙농전문가로 일본 낙농 현황과 미래, 낙농 근대화 등 일본 낙농정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상천 소장은 "명장 초청 교육을 통해 유가공 선진국 일본의 치즈제조 기술 습득과 낙농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소규모 치즈공장 활성화로 대표 치즈를 생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6년부터 목장형 유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치즈아카데미(초급·중급·고급), 국외 명장 초청교육 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13개소의 목장형 유가공 업체에서 60여종의 다양한 치즈와 요거트를 생산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과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10일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주민설명회

서남해 갯벌의 문화적 특징·고창갯벌의 우수성 등 홍보·설명

고창군(군수 박우경)과 (재)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10일 람사르고창갯벌센터에서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고창군 해리면·심원면·부안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군은 지난 8월부터 각 지역 주민과 문화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 고창갯벌은 지형·지질학적 속성으로 급경사 알반해안을 따라 갯벌과 섬이 분포한 섬갯벌로, 해리면 모래곶도와 심원면의 혼합갯벌 부안면의 펄갯벌 등 다양한 갯벌 퇴적양상을 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한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저서동물, 염생식물은 물론 노란부리저어새, 검은머리 물떼새 등 멸종 위기종이 출현·관찰되고 있다. 고창군은 해리면·심원면·부안면의 약 84㎢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이며,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람사르습지와 2013년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2019년 등재를 목표로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서남해안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앞으로 유네스코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생태관광 자원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생활 속 규제 도민공모 '도지사 표창'

순창군이 10일 전북도 주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시상식'에서 생활 속 규제 도민공모 우수과제로 3건이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순창군은 총 10건의 우수과제 중 3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우수사례는 건강장수사업소 차명란 주무관이 제안한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과 민원과 실연경 주무관이 제안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대상 확인방법의 절차 간소화', 적성면 갈다래 주무관이 제안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범위 및 지문 인식범위 확대' 제안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등록 등본 온라인 발급은 현재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

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이 개정되면 민원24포털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인계면 박선숙 주무관이 현역 참여자에 대한 전산기록을 통한 의료비 감면 개선 제안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우리 생활 속 경험을 토대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는 데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수기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

사격의 대중화·저변확대 기여

제7회 임실군수기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사)임실군장애인연합회(회장 손주완) 주관으로 청음면 소재 전라북도종합사격장에서 지난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개최된다. 10일 열린 개회식은 심민 군수를 비롯해 문영두 군의장, 박석균 전라북도 장애인사격연맹회장, 임원, 선수,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성황을 이뤘다. 군 관계자는 "대회를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고 사격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의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종합사격장은 매년 전국 대회를 꾸준히 유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4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사격대회', '제42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제1회 전라북도사격연맹회장기 생활체육 전국사격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경찰, 보행안전교육 실시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안파출소에서는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1월에는 일몰시간이 빨라져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품품이 안심수화물 등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사례 및 저녁·새벽시간대 밝은 옷 입기, '서다. 보다. 보다. 보다. 밤어보행 3 원칙 준수'로 무단횡단 금지, 순수레 안전하게 운행하기 등 '안전한 보행습관'으로 나를 지키자'는 내용의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명희 소장은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보행자 안전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계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임실군지부, 금융교육 실시

NH농협 임실군지부는 지난 9일 군민 자녀 어린이를 대상으로 충경어린이집에서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금융교실은 미래경제를 책임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금융생활 습관, 올바른 용돈 관리 등 경제 교육을 실시했다. NH농협 임실군지부는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매년 희망하는 학교 측의 요청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눈높이 경제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교육으로 학생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상생하는 농협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